

ANT(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해 본 디자인 실험

(논문제목, 함초롬바탕, 18pt, Bold)

- 000의 이론을 중심으로 -

(논문부제목, 함초롬바탕, 16pt, Bold)

차례 (차례, 함초롬바탕, 11pt, Bold)

1. 서론 (차례1., 함초롬바탕, 10pt, Bold)

2. 본론

- 2.1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환상 (차례1.1, 함초롬바탕, 10pt)
- 2.2 행위자-연결망 이론
- 2.3 근대성 - 인류학 - 준대상
- 2.4 준대상으로서 공예
- 2.5 전선에 선 디자인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김철수* (저자(한글/영문), 함초롬바탕, 12pt, Bold)

소속: 00대학교 박사과정 (design@naver.com)

교신저자: 홍길동

소속: 00대학교 교수(history@naver.com) (소속과 직책, 함초롬바탕, 10pt)

요약 (요약과 주제어, 함초롬바탕, 11pt, Bold)

브루노 라투르 등에 의해 정립된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인간과 비인간을 존재론적으로 평등하게 간주하고, 개체들의 상호관계에 기초한 개방적 사유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다. 디자인 및 디자인사 연구 방법의 고찰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ANT의 핵심 개념인 '일반화된 대칭성'의 이론적 근거로 라투르의 근대성 비판 작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디자인만이 아니라 근대 학문 일반이 지니고 있는 비대칭적 시각을 보정하고, 학문의 자기 규정 내지 자기 서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한다. 나아가 라투르의 '준대상' 개념을 기초로 디자인 연구 대상의 속성과 양태를 규명한다. 디자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영역에 등록될 개체들은 전적인 주체나 객체로 구분되기 이전의 매개적 행위자들이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기성의 사고 구조나 삶의 양식은 이 새로운 연합체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배치와 번역을 수행하는 '전선에 선 디자인',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의 '디자인' 개념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함초롬바탕, 10pt)

* 요약문은 키워드를 포함하여, 500~800자(공백 제외)로 작성한다.

* 아래 본문은 샘플 제공을 위해 실제 논문의 일부분을 짜깁기한 것입니다.

주제어 (요약과 주제어, 함초롬바탕, 11pt, Bold)

행위자-연결망 이론, 라투르, 근대성, 준대상, 디자인, 공예
(핵심어, 함초롬바탕, 9pt)

* 본 연구는 ○○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불필요시 삭제)

한국디자인사학회
엑스트라 아카이브 13: 디자인사연구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Extra Archive 13: Journal of Design History

ISSN. 2765-7825
투고일: 2026년 6월 25일
심사일: 2026년 7월 5일~8월 4일
게재확정일: 2026년 8월 30일

Actor-Network Theory and Design-in-action

(논문제목(영문), 함초롬바탕, 16pt, Bold)

- Focusing on OOO's Theory -

(논문부제목(영문), 함초롬바탕, 14pt,
Bold)

Kim Cheolsoo (저자(한글/영문), 함초롬바탕, 12pt, Bold)

Korean University, Ph.D. Candidate (소속과 직책, 함초롬바탕, 10pt)

Hong Gildong (저자(한글/영문), 함초롬바탕, 12pt, Bold)

Korean University, Professor (소속과 직책, 함초롬바탕, 10pt)

Abstract (요약과 주제어, 함초롬바탕, 11pt, Bold)

The actor-network theory(ANT), established by Bruno Latour, is a theory that considers humans and non-humans ontologically equally as a model of open thinking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of individuals. For the study of design and design history research method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we examine Latour's critique of modernity and the concept of 'generalized symmetry'. Through this, not only design, but also the asymmetrical visions of the modern academies general would be corrected, and the minimum conditions for self-regulation or self-describing of the academic discipline would be prepared. Furthermore, on the basis of Latour's concept of 'sub-object', I try to identify the properties and aspects of the design research object. The sub-objects in the field of design research can be considered as the active mediators before they are divided into subjects or objects. With the new emergence of human and non-human actors that have been concealed for a while, the traditional thinking structures and lifestyles should give space to this new coalition. The concepts of 'Design in action' or 'design in the process of being created' are words expressing these new arrangements, translations. (요약문, 함초롬바탕, 10pt)

Key Words (요약과 주제어, 함초롬바탕, 11pt, Bold)

Actor-Network Theory, Latour, Modernity, Sub-object, Design, Carft
(핵심어, 함초롬바탕, 9pt)

한국디자인사학회
엑스트라 아카이브 13: 디자인사연구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Extra Archive 13: Journal of Design History

ISSN. 2765-7825
투고일: 2026년 6월 25일
심사일: 2026년 7월 5일~8월 4일
게재확정일: 2026년 8월 30일

1. 서론 (본문제목1. 함초롬바탕, 11pt, Bold)

본 논문은 ANT(Actor-Network Theory,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초한 디자인 및 디자인사 연구 방법론 제안에 목적을 둔다. 1980년대 과학기술학(Science & Technology Studies, STS)의 한 분파로 시작된 ANT는 현재 과학학, 사회학, 교육학, 인류학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활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국내에서도 김환석, 이준석, 홍성욱 등을 중심으로 ANT의 기본 개념과 체계가 소개되었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ANT를 통한 현장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ANT 관련 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현장과 사례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¹⁾ 그동안 만들어 지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이론적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에, ANT에 대한 학문적 평가나 관련 연구의 동향에 대한 판단을 바로 내리긴 어렵다. (본문내용, 함초롬바탕, 10pt)

2. 본론

2.1.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환상 (본문제목1.1, 함초롬바탕, 11pt, Bold)

2.1.1 지식의 객관성 (본문제목1.1.1, 함초롬바탕, 10pt, Bold)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물음은 학문 내지 전문 영역을 연구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각각 다른 답을 제시한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난제가 등장한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테이블에 대학 교수 두 명과 치킨회사 관계자가 앉아 있다. 이 테이블은 대규모 영화사가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단지 여러 주장과 사건들을 모아 달걀이 먼저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두 번째 테이블에는 보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연구진들이 앉아 있다. 이들은 닭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OC-17', 탄산칼륨', 방해석', 난소' 등 객관적' (으로 보이는) 입자와 기관을 발견했고, 이러한 발견을 위해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까지 했다.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우리에게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로 보이는 것은 어느 쪽인가?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2.2. 행위자-연결망 이론

1970년대 과학기술학(Science & Technology Studies, STS)의 한 분파인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대표적 학자인 라투르(Bruno Latour)는 행위자를 추적하라(You have to follow the actors themselves)'는 모토로 ANT의 이론적 지향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과학에 대해서는 구성주의적이 되면서도 사회에 대해서는 실재론자가 되는 것이다.²⁾

우리가 추구하는 설명으로 분명 자연과 사회를 획득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이지 기원으로서가 아니다. 자연이 공전을 하지만 주체/사회를 그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 자연은 사물과 인간을 생성하는 집합체 주위를 선회한다. 주체는

1) 디자인 분야 ANT 관련 논문으로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조형연구에 활용한 연구로서, ANT의 이론적 특징 및 조형과 과학기술의 상호 구성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디자인 현장 연구가 아닌 ANT 관련 이론적 조망에 집중되어 있다. (민수홍, 『사물의 문화,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의 상호구성성 이해: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이해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권 1호, 기초조형학회, 2019)

2)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갈무리, 2009, p.242

공전하지만 자연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인간과 사물이 발생하는 집합체를 중심으로 공전한다.”³⁾ (직접인용, 함초롬바탕, 9pt)

인용문에서 보듯 행위자의 행위자성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사물에게서도 발견된다. 라투르는 지식과 담론, 자연과 사회/인간으로 구분된 오랜 이분법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습관화된 인식에 따른 것일 뿐, 그러한 인식 이전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단지 인간과 비인간의 집합체(그림 1)가 있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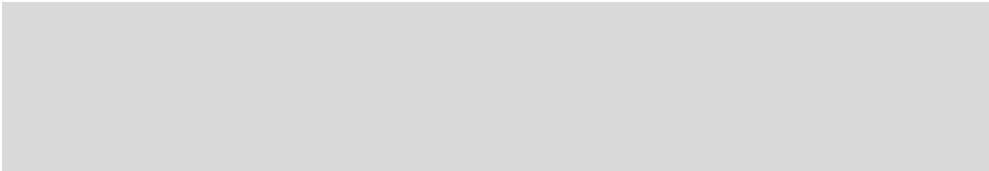


[그림 1] 인간과 비인간의 집합체 (그림 캡션, 함초롬바탕, 9pt)

2.3. 근대성-인류학-준대상

만들어지는 과정 중의 과학’, 전선에 선 과학’을 추적하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지식 생산의 과정에 어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합해 있고, 또 어떤 번역 전략을 구사하여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 가는지를 ‘현장에서’ 살피려는 시도이다. 이는 인류학적 방법론에 가깝다. 라투르 역시 자신은 ‘과학적 실천에 민속지학적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⁴⁾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사회인류학이나 문화인류학<표 1>⁵⁾이 문화들을 다루고 있다면, 자신은 물리학적, 생물학적 인류학을 통해 자연을 다루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표 1> 문화인류학 (표 캡션, 함초롬바탕, 9pt)



3. 결론

선언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전선에 선 디자인(Design in Action)’이 실제 디자인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동맹을 맺고 또 어떠한 번역 과정을 거쳐 일상에서 하나의 광범위한 삶의 양식으로 블랙박스화 되는지, 그 전모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3)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204.
4)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6.
5)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6.

참고문헌 (참고문헌 제목, 함초롬바탕, 11pt, Bold)

- 글렌 아담슨, 『뽕예의 발명』, 김정아·문유진·박중원·임지연 역, 미진사, 2017.
- 민수홍, 『사물의 문화,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의 상호구성성 이해』, 『기초조형학연구』, 20권 1호, 기초조형학회, 2019.
- 부르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갈무리, 2009.
- 부르노 라투르, 『끓은 과학의 전선-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 연결망의 구축』, 황희숙 역, 아카넷, 2016.
- 이정우, 『미셸 세르와 헤르메스의 철학』, 『철학과 현실』, 제27호, 철학문화연구소, 1995.
- 펠릭스 가타리, 『기계적 무의식』, 윤수종 역, 푸른숲, 2003.
- Forty, Adrian.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Thames and Hudson, 1986.
- Law, John.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 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Vol.5, No.4, 1992.

(참고문헌 내용, 함초롬바탕, 10pt)

-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 기타 순으로 작성.
- ※ 국내 문헌의 경우 단행본, 논문, 정기간행물 등의 구분 없이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
- ※ 국외 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배열.